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연구

- 근무기관 · 경력 · 지역을 중심으로 -

류정숙 · 김영남¹ · 한경순²

극동정보대학 치위생과, ¹경북대학 치위생과, ²가천의과학대학교 치위생학과

색인: 근무경력, 근무기관, 근무지역, 근무환경, 치과위생사

1. 서 론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관리 및 환자관리, 구강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 및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구강보건 전문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 또한 의료소비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의 구강보건정책이 치료위주의 진료에서 예방위주의 진료로 전환되면서 구강질환의 예방처치자이자 구강보건교육 전문가인 치과위생사의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치과위생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 또한 의

료소비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전문화 및 세분화된 업무와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양한 학제 속에서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근무환경 중 임금 및 승진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대/예상치(expectancy/valence)이론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임금이나 승진의 공정성이 결여되었거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망하여 이직을 결정하게 된다. 직장의 이동은 노동시장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나 과도한 노동이 직무만족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무만족이 결근과 이직에 강한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높은 결근율과 이직률은 집단

의 생산성, 직원의 사기(staffmorale), 직무의 성과(performance)를 감소시킨다³⁾.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임상분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정⁴⁾과 권⁵⁾은 평균 직업수명이 비교적 짧고, 임⁶⁾, 정⁴⁾, 이⁷⁾의 연구에서는 이직 경험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임⁶⁾은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요인으로 근무조건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살펴보면 임금, 승진, 휴가, 근로시간 등의 근무환경은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성이 있으며, 직무만족도는 이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근무환경은 직무만족도 및 이직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치과위생사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치과위생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치과위생사의 근무기관별 근무환경을 파악한다.
- 셋째,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별 근무환경을 파악한다.
- 넷째, 치과위생사의 근무지역별 근무환경을 파악한다.
- 다섯째, 치과위생사의 근무지역에 따른 근무경력별 근무환경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미취업자 및 소재불명의 회원을 제외하고 보건분야와 임상분야를 포함한 치과의료분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8,400명 중 전국의 각 지역별로 약 20%의 비율로 분류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후 조사하였다.

2.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기간은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였으며,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회수는 1,203부가 회수되어 총 71.6%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36부를 제외한 1,16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정⁴⁾의 치과위생사의 이직 및 직무활동에 관한 연구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수정·보완 후 예비조사와정을 거쳐 본 연구에 사용하였고 조사내용은 연령, 학력, 결혼여부, 근무지역, 근무의료기관, 총 근무경력, 현 근무경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 관련사항, 휴가, 기혼자 복지, 연수 및 자기개발, 이직 등으로 구성하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근무분야별 근무환경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근무기관별, 근무경력별, 지역별, 업무분야별, 지역에 따른 근무경력별 임금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합 계	
		N	평균±표준편차(개)
연 령	21 ~ 23세	327	28.0
	24 ~ 26세	340	29.1
	27 ~ 29세	195	16.7
	30 ~ 34세	118	10.1
	35 ~ 39세	102	8.7
	40세 이상	85	7.3
	계	1,167	100.0
근무기관	치과의원	605	51.8
	치과병원	298	25.5
	종합병원	108	9.3
	보건(지)소	143	12.2
	기업체 의무실	3	0.3
	기타	10	0.9
	계	1,167	100.0
근무지역	서 울	267	26.1
	광역시	316	30.9
	경 기	171	16.6
	강 원	15	1.5
	충 청	46	4.4
	전 라	93	9.1
	경 상	87	8.6
	제 주	29	2.8
	계	1,024	100.0
총 근무경력	1 ~ 3년	405	41.4
	4 ~ 6년	245	25.1
	7 ~ 10년	133	13.5
	11 ~ 20년	170	17.4
	21년 이상	25	2.6
	계	978	100.0
학 력	의학기술원	5	0.5
	2년제 전문대학	172	14.8
	3년제 전문대학	834	71.5
	대학교	103	8.8
	대학원졸	51	4.4
	계	1,166	100.0

3. 연구성적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24~26세가 2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1~23세가 28.0%, 27~29세는 16.7%였으며, 근무처는 치과의원이 51.8%, 치과병원 25.5%, 보건(지)소 12.2%, 종합병원 9.3%와 소수이지만 특수의료법인단체와 치과관련업체 및 의료보험청구기관 등의 기타 기관(0.9%)과 기업체 의무실(0.3%)도 조사되었다. 근무지역으로는 광역시가 3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26.1%, 경기 16.6%, 전라 9.1%, 경상 8.6%로 나타났다. 총 근무경력은 1~3년이 4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6년 25.1%, 11~20년 17.4%, 7~10년 13.5%, 21년 이상은 2.6%로 가장 적었다. 학력은 3년제 전문대학 71.5%, 2년제 전문대학 14.8%, 대학교 8.8%, 대학원 4.4%, 의학기술원 0.5% 순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3.2 근무기관별, 지역별 및 경력별 근무환경

3.2.1 근무기관별 근무환경

치과위생사의 근무기관별 근무환경은 <표 2>와 같다.

연령은 보건(지)소가 37.62세로 가장 높았고, 기업체 의무실은 34.0세, 기타 기관 29.9세,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27.63세, 치과의원 26.27세, 치과병원 25.41세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총 근무 경력은 보건(지)소가 15.29년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체 의무실 10년, 기타 기관 6.60년,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5.51년, 치과의원 3.92년, 치과병원 3.43년이었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

보건(지)소 근무자가 12.16년으로 가장 높았고, 기업체 의무실 4.33년,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4.10년, 기타 기관 3.30년, 치과병원 2.38년, 치과의원 2.13년으로 조사되었다.

1주일간 근무일수는 치과의원이 5.79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은 5.67일,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5.31일, 기타 5.1일, 보건(지)소 5.04일, 기업체 의무실은 5일로 조사되었으며 1일 근무 시간은 치과병원이 9.15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치과의원 8.83시간, 기업체 의무실 8.67시간,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8.44시간, 보건(지)소 8.22시간, 특수의료법인단체와 치과관련업체 및 의료보험청구기관 등의 기타 기관은 7.7시간이었다. 정기휴가일은 기타 기관이 20일로 가장 많았고, 보건(지)소 19.29일, 기업체 의무실 14.33일,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11.55일, 치과의원 6.81일, 치과병원 6.66일이었다.

월임금은 기타 기관이 2,430,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지)소 2,300,400원,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1,609,700원, 치과의원 1,568,600원, 치과병원은 1,539,500원으로 각 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p < 0.001$).

연간 임금상승액(정액)은 기타 기관이 183,330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원 129,760원, 치과의원 121,500원,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87,170원, 보건(지)소 67,780원, 기업체 의무실은 48,000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연간 임금상승률(정률)은 치과병원이 8.21%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원 8.16%, 기업체 의무실 8.00%,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6.22%, 보건(지)소 3.24%, 기타 2.83% 순이었다. 1회 평균 포상금 지급액수는 보건(지)소가 60,960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25,000원, 치과의원 23,680원, 치과병원 20,910원, 기타 10,000원이었으며 1년간 지급되는 포상금의 총액은 치과병원이 188,330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원은

표 2. 근무기관별 근무환경

구분		근무기관						합계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대학) 병원치과	보건(지)소	기업체 의무실	기타	
연령(세)	N	605	298	108	143	3	10	1,167
	M	26.27	25.41	27.63	37.62	34.00	29.90	27.62
	SD	4.32	3.71	6.01	5.67	7.21	6.79	5.95
총 근무경력(년)	N	605	298	108	143	3	10	1,167
	M	3.92	3.43	5.51	15.29	10.00	6.60	5.37
	SD	3.99	3.59	5.70	5.92	3.61	6.69	5.77
현 근무경력(년)	N	605	298	108	143	3	10	1,167
	M	2.13	2.38	4.10	12.16	4.33	3.30	3.62
	.	2.56	2.32	5.20	6.61	2.52	6.34	4.84
근무일수(일) /주	N	605	298	1,081	143	3	10	1,167
	M	5.79	5.67	5.3	5.04	5.00	5.10	5.61
	SD	0.48	0.51	0.48	0.20	0.00	1.29	0.54
근무시간(시간) /일	N	605	298	108	143	3	10	1,167
	M	8.83	9.15	8.44	8.22	8.67	7.70	8.79
	SD	1.04	1.17	0.76	0.51	1.15	2.26	1.07
정기휴가(일) /년	N	518	282	99	129	3	9	1,040
	M	6.81	6.66	11.55	19.29	14.33	20.00	8.91
	SD	8.22	4.95	6.89	5.43	9.02	30.19	8.62
임금액(만원) /월***	N	332	105	39	61	-	4	541
	M	156.86	153.95	160.97	230.04	-	243.08	165.48
	SD	45.36	57.89	69.48	71.06	-	138.35	59.18
임금상승액(만원)	N	314	91	24	23	2	3	457
	M	121.50	129.76	87.17	67.78	48.00	183.33	118.72
	SD	46.20	49.31	51.35	53.66	16.97	102.14	50.25
임금상승률(%) /년	N	60	29	9	29	1	3	131
	M	8.16	8.21	6.22	3.24	8.00	2.83	6.83
	SD	3.54	2.97	2.33	1.93	-	1.89	3.64
포상액수(만원) /회	N	94	43	3	23	-	1	164
	M	23.68	20.91	25.00	60.96	-	10.00	28.12
	SD	40.71	12.91	22.91	28.56	-	-	35.84
포상액(만원) /년	N	25	6	-	12	-	2	45
	M	116.80	188.33	-	103.33	-	100.00	122.00
	SD	125.89	241.94	-	41.41	-	70.71	128.73
출산휴가(월) /회	N	300	242	95	131	3	6	777
	M	2.56	3.05	3.07	2.97	4.00	4.00	2.86
	SD	0.70	1.91	1.42	0.39	1.73	1.55	1.30

+ 무응답 제외

*** : p<0.01

116,800원, 보건(지)소 103,330원, 기타 100,000원이었다.

출산휴가 기간은 기업체 의무실과 기타 기관이 4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치과병원 3.05개월, 종합(대학)병원치과 3.07개월, 치과병원 3.05개월, 치과의원 2.56개월 순이었다.

3.2.2 근무경력별 근무환경

총 근무경력에 따른 근무환경은 <표 3>과 같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에 총 근무경력 10년 이상이 7.31년으로 가장 많았고, 7~9년은 4.4년, 4~6년 근무자는 3.13년, 1~3년 근무자는 1.39년 이었다. 이직횟수는 10년 이상 경력자가 2.67회로 가장 높았고, 7~9년 2.01회, 4~6년 1.75회, 1~3년 1.39회였다.

근무일은 1~3년 경력자가 5.71일로 가장 높았고, 4~6년 5.68일, 7~9년 5.68일, 10년 이상 5.58일 이었으며 1일 근무시간은 1~3년 경력자가 8.91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4~6년 8.83시간, 7~9년 8.74시간, 10년 이상 8.51시간이었다. 정기 휴가일은 10년 이상 경력자가 10.83일로 가장 높았고, 7~9년 7.53일, 4~6년 7.34일, 1~3년 7.10일이었다.

월임금액은 10년 이상 경력자가 2,213,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7~9년은 1,902,200원, 4~6년 1,735,900원, 1~3년 1,438,500원이었다. 임금 상승액은 10년 이상 경력자가 125,090원으로 가장 높았고, 4~6년 126,040원, 1~3년 118,880원, 7~9년은 108,360원이었으며, 임금 상승률은 4~6년 경력자가 8.40%로 가장 높았고, 1~3년 7.85%, 10년 이상 6.71%, 7~9년 6.20%이었다. 1회에 지급되는 포상액은 7~9년 근무자가 40,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은 36,000원, 4~6년 21,740원, 1~3년 18,730원 이었으며 연간 지급되는 포상액은 10년 이상 근무자가

214,290원으로 가장 많았고, 4~6년 185,000원, 7~9년 184,700원이었다.

출산휴가는 1~3년 경력자가 1.73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4~6년은 1.59개월, 7~9년은 1.47개월, 10년 이상은 1.40개월로 조사되었다.

3.2.3 지역별 근무환경

지역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은 <표 4>와 같다.

총 근무경력에 강원도와 전라도가 4.87년으로 가장 길었고, 서울지역 4.49년, 경상 4.20년, 경기 3.89년, 광역시 3.41년, 충청 3.61년이었으며, 제주도는 2.86년으로 가장 짧았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에 경상도가 3.40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원 3.33년, 전라 3.04년, 서울 2.44년, 광역시 2.33년, 경기 2.01년, 충청 1.87년, 제주 1.52년 이었다. 이직횟수는 경기도가 2.01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6회, 전라 1.94회, 제주 1.94회, 광역시 1.74회, 강원 1.56회, 충청 1.36회, 경상 1.36회로 조사되었다.

1주간 근무일수는 경상도가 5.93일로 가장 길었고, 제주 5.90일, 전라 5.86일, 강원 5.73일, 충청 5.72일, 광역시 5.67일, 경기 5.65일, 서울 5.59일이었으며 1일 근무시간은 광역시가 9.2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강원 9.20시간, 충청 8.91시간, 전라 8.82시간, 제주 8.79시간, 경상 8.77시간, 경기 8.65시간, 서울이 8.61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연·월차를 포함한 정기휴가일수는 강원도가 10.88일로 가장 길었고, 서울 9.20일, 광역시 7.37일, 경상 7.23일, 경기 6.55일, 충청 6.50일, 전라 4.82일, 제주도는 4.46일로 가장 적었다. 월 임금액은 경상도가 1,718,5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94,500원, 경기 1,664,200원, 충청 1,564,800원, 광역시 1,437,000원, 전라 1,279,400

표 3. 근무경력별 근무환경

구 분		1 ~ 3년	4 ~ 6년	7 ~ 9년	10년 이상	합계
현 근무경력(년)	N	396	241	100	101	838
	M	1.39	3.13	4.48	7.31	2.97
	SD	0.90	1.80	2.99	5.24	3.06
이직횟수(회)	N	147	154	70	88	459
	M	1.39	1.75	2.01	2.67	1.85
	SD	0.63	0.86	1.01	1.54	1.09
근무일수(일) /주	N	396	241	100	101	838
	M	5.71	5.68	5.68	5.58	5.68
	SD	0.52	0.49	0.74	0.55	0.55
근무시간(시간) /일	N	396	241	100	101	838
	M	8.91	8.83	8.74	8.51	8.82
	SD	1.09	1.04	1.24	0.84	1.08
정기휴가(일) /년	N	357	222	87	89	755
	M	7.10	7.34	7.53	10.83	7.66
	SD	5.92	8.23	5.45	12.42	7.69
임금액(만원) /월	N	184	99	50	42	375
	M	143.85	173.59	190.22	221.35	166.56
	SD	35.83	40.96	74.58	66.02	54.34
임금상승액(만원) /년	N	206	108	39	44	397
	M	118.88	126.04	108.36	125.09	120.48
	SD	49.15	44.21	49.21	53.37	48.44
임금상승률(%) /년	N	30	35	15	12	92
	M	7.85	8.40	6.20	6.71	7.64
	SD	4.07	3.41	2.14	2.65	3.45
포상액수(만원) /회	N	60	38	10	12	120
	M	18.73	21.74	40.50	36.00	23.22
	SD	11.65	31.86	58.57	83.38	36.57
포상액수(만원) /년	N	10	8	4	7	29
	M	42.00	185.00	107.50	214.29	132.07
	SD	20.44	184.70	69.94	199.74	152.35
출산휴가(월) /회	N	393	237	100	100	830
	M	1.73	1.59	1.47	1.40	1.62
	SD	1.09	1.04	0.89	0.79	1.03

원, 강원 1,202,800원, 제주도는 1,089,700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연간 임금 상승액은 경기도가 148,73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5,510원, 충청 134,950원, 광역시 114,350원, 경상 98,000원, 제주 92,840원, 전라 88,630원, 강원도는 70,290

원으로 가장 적었다.

1회에 지급되는 포상금 액수는 전라도가 4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420원, 경기 24,960원, 강원 19,500원, 광역시 18,460원, 제주 12,860원, 경상 11,500원, 충청 7,000원이었으며

표 4. 지역별 근무환경

구 분		서울	광역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합계
총 근무경력(년)	N	267	316	171	15	46	93	87	29	1,024
	M	4.49	3.41	3.89	4.87	3.61	4.87	4.20	2.86	3.99
	SD	4.61	4.02	4.40	2.56	4.65	3.74	3.57	1.85	4.18
현 근무경력(년)	N	267	316	171	15	46	93	87	29	1,024
	M	2.44	2.33	2.01	3.33	1.87	3.04	3.40	1.52	2.43
	SD	3.45	2.83	2.95	2.74	2.54	2.45	3.07	1.50	3.00
이직횟수(회)	N	162	100	76	9	22	52	33	16	470
	M	1.96	1.74	2.01	1.56	1.36	1.94	1.36	1.94	1.84
	SD	1.20	1.05	1.09	0.73	0.58	1.07	0.60	1.00	1.08
근무일수(일) /주	N	267	316	171	15	46	93	87	29	1,024
	M	5.59	5.67	5.65	5.73	5.72	5.86	5.93	5.90	5.69
	SD	0.60	0.49	0.66	0.46	0.46	0.35	0.25	0.31	0.53
근무시간(시간) /일	N	267	316	171	15	46	93	87	29	1,024
	M	8.61	9.24	8.65	9.20	8.91	8.82	8.77	8.79	8.87
	SD	0.85	1.19	1.29	0.86	0.96	0.98	0.94	0.90	1.10
정기휴가(일) /년	N	249	291	150	8	36	73	78	26	911
	M	9.20	7.37	6.55	10.88	6.50	4.82	7.23	4.46	7.43
	SD	9.07	9.71	5.72	6.03	5.45	2.56	4.11	1.98	7.95
월임금액(만원)	N	174	111	102	6	21	33	20	13	480
	M	169.45	143.70	166.42	120.28	156.48	127.94	171.85	108.97	157.28
	SD	47.76	52.38	46.46	18.27	39.99	31.35	100.97	14.46	52.13
임금상승액(만원) /년	N	123	113	74	7	21	57	20	19	434
	M	135.51	114.35	148.73	70.29	134.95	88.63	98.00	92.84	121.42
	SD	38.79	44.73	49.46	35.62	69.55	30.06	60.73	32.46	48.66
임금상승률(%) /년	N	43	21	18	2	3	7	3	5	102
	M	7.79	7.48	8.53	4.50	10.00	7.00	10.67	5.40	7.84
	SD	3.26	3.16	4.14	2.12	0.00	2.24	4.04	2.88	3.37
포상액(만원) /회	N	38	41	28	6	3	10	8	7	141
	M	26.42	18.46	24.96	19.50	7.00	43.00	11.50	12.86	22.77
	SD	34.10	13.06	32.27	18.15	2.65	90.41	11.75	8.09	34.08
포상액(만원) /년	N	10	5	12	-	3	-	-	3	33
	M	147.00	64.00	181.67	-	66.67	-	-	26.67	128.79
	SD	176.76	58.99	165.90	-	50.33	-	-	20.82	148.38
출산휴가 (개월)	N	265	314	170	15	46	93	87	26	1,016
	M	1.68	1.41	1.64	1.47	1.91	1.94	1.24	2.42	1.60
	SD	1.00	0.89	1.05	0.83	1.13	1.06	0.75	1.50	1.01

+ 무응답 제외

1년 동안 지급되는 포상금 액수는 경기도가 181,67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7,000원, 강원 66,670원, 광역시 64,000원, 제주 26,670원으로 조사되었다.

출산휴가는 평균 1.60개월이었으며 제주, 전라, 충청이 높았고 경상, 광역시, 강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2.4 근무지역에 따른 근무경력별 임금

근무지역에 따른 근무기관별 임금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근무경력별 임금차이는 1년 경력자가 1,364,600원이었고, 2년은 1,431,400원, 3년 1,543,000원, 4년 1,619,500원, 5년 1,702,000원, 6년은 1,904,900원 이었다. 근무지역별에 따른 임금 수준은 조사대상자의 평균근무경력을 4년 근무경력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서울이 1,820,800원, 경기 1,795,800원, 경상도 1,604,200원, 광역시 1,424,800원, 강원도 1,300,000원 전라도 1,016,700원이었다. 근무지역별 초임은 서울지역이 1,501,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이 1,441,700원, 충청 1,423,300원, 경상 1,300,000원, 제주 1,116,700원, 전라도는 904,000원으로 타 지역보다 낮았다.

4. 종합 및 고안

본 연구는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을 기관별, 지역별, 경력별로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치과의원(5.79일/8.83시간)이나 치과병원(5.67일/9.15시간)이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나 보건(지)소,

기업체 의무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별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은 1~3년 경력의 치과위생사에서 각각 5.71일, 8.91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이 각각 5.58일과 8.51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근소한 차이지만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등⁸⁾의 연구에서도 근무기관별 근무시간은 치과병원(10.03시간)이, 진료시간은 치과의원(8.98시간)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근무기관별 근무시간과 진료시간, 연령, 근무경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근무경력별로는 근무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근무일수는 경상도가 5.93일로 가장 길었고, 서울이 5.59일로 가장 짧았으나 크게 차이는 없었고, 일일근무시간은 광역시가 9.2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서울이 8.61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나 주근무일과 일일근무시간에 있어 서울지역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직횟수는 경기도가 2.01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6회, 전라 1.94회, 제주 1.94회, 광역시 1.74회, 강원 1.56회, 충청 1.36회, 경상 1.36회로 조사되었다.

근로기준법⁹⁾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분야는 공공보건조직으로서 법정 근무시간이 준수되는 것으로 보이나 임상분야는 법정 1일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상분야에서는 실제로 이보다 1~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지 진료의 지연으로 인한 근무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진료 전·후의 준비 및 정리로 인한 시간 연장으로 사료된다. 과도한 근무시간

표 5. 근무지역에 따른 근무경력별 임금

근 무 경 력		근무지역별 임금								
		서울	광역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합계
1년	N	25	-	12	1	5	5	1	2	51
	M	150.18	-	144.17	130.00	142.33	90.40	130.00	111.67	136.46
	SD	23.79	-	19.10	-	34.79	3.65	-	30.64	27.67
2년	N	20	16	12	2	2	2	5	4	62
	M	146.00	138.86	149.10	110.00	155.83	100.00	180.73	104.58	143.14
	SD	41.07	22.92	57.43	-	15.32	0.00	10.84	10.57	39.73
3년	N	20	9	13	-	2	5	2	2	53
	M	174.17	123.33	168.94	-	135.00	118.00	161.67	102.50	154.30
	SD	26.48	50.57	23.59	-	49.50	16.43	30.64	3.54	38.49
4년	N	10	7	12	1	2	4	2	-	38
	M	182.08	142.48	179.58	130.00	161.67	101.67	160.42	-	161.95
	SD	21.88	29.55	21.81	-	18.86	15.99	8.84	-	33.68
5년	N	17	2	4	1	1	2	1	1	29
	M	191.03	162.00	162.08	90.00	136.00	115.00	150.00	110.00	170.20
	SD	40.77	16.97	35.21	-	-	7.07	-	-	44.78
6년	N	18	2	7	-	2	1	-	1	32
	M	195.14	165.80	189.52	-	230.00	160.00	-	120.00	190.49
	SD	38.58	1.18	51.14	-	4.71	-	-	-	40.83
7년	N	7	4	7	1	-	4	-	2	25
	M	199.88	153.00	225.00	120.00	-	139.17	-	125.00	180.51
	SD	22.19	110.25	27.22	-	-	15.72	-	7.07	58.03
8년	N	6	6	1	-	-	3	-	-	16
	M	201.39	173.89	190.00	-	-	155.56	-	-	181.77
	SD	32.24	39.80	-	-	-	9.62	-	-	34.75
9년	N	2	3	1	-	1	1	-	-	9
	M	180.00	208.33	140.00	-	241.67	140.00	-	-	232.22
	SD	63.64	36.32	-	-	-	-	-	-	138.85
10년	N	5	1	1	-	-	3	1	-	11
	M	207.33	170.00	250.00	-	-	166.67	120.00	-	188.79
	SD	43.68	-	-	-	-	15.28	-	-	44.85
합계	N	130	50	70	6	15	30	12	12	325
	M	169.45	143.70	166.42	120.28	156.48	127.94	171.85	108.97	157.28
	SD	47.76	52.38	46.46	18.27	39.99	31.35	100.97	14.46	52.13

+ 무응답 제외

초과는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부족과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실제로 빈번하게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무시간 초과에 대한 수

당을 지급하고 있기도 한다. 복리후생 중 휴가 보상은 휴일과 병가, 하계휴가 그리고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 등 실제로 일하지 않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주어진 직원의 연휴가일 중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일수에 대해 매 회계 연도 말에 보상을 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업무효율성을 위해 휴식과 자기개발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장기적인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만성피로의 유발과 근무의욕 상실로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근무시간을 정착화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휴가에 있어서는 근무기관별로 평균 정기휴가일수는 보건(지)소가 19.29일로 높게 나타났다으나 치과병원(6.66일)과 치과의원(6.81일)이 대체로 낮아 근무기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 치과위생사의 정기휴가일수는 평균 8.91일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⁹⁾에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규정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휴가제도는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힘의 충전을 통해 업무의 능률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복지문제가 근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고를 통해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휴가 규정 등의 복지문제를 명확히 하여 치과위생사들의 사기와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임금관련 사항에 있어서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무경력²⁾은 3.99년이며 월평균 임금은 1,572,800원이었다. 근무기관별로는 보건(지)소 근무자가 15년과 2,300,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원 근무자가 3.43년과 1,539,5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각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근무지역별에 따른 임금 수준은 4년 근무경력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820,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795,800원, 경상도 1,604,200원, 광역시

1,424,800원, 강원도 1,300,000원 전라도 1,016,7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별 초임금은 서울지역이 1,501,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도가 904,000원으로 타 지역보다 낮았다. 2003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¹¹⁾의 전국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월평균 초임금은 남자 1,501,778원 여자 1,509,072원이며, 간호사의 경우 4년제 졸업자는 1,592,566원, 3년제 졸업자는 1,510,132원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조사결과가 2003년 자료임을 감안하면 2006년 본 연구의 1년 경력의 치과위생사 월평균 임금 1,364,600원과 비교하였을 때 전국 병원근무 의료기사의 3년 전 임금 수준과 유사하므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어 치과위생사의 임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경력별 월평균 임금수준으로 1년 근무자의 월평균 임금은 1,364,600원, 2년 1,431,400원, 3년 1,543,000원, 4년 1,619,500원, 5년 1,702,000원, 6년은 1,904,900원으로 1년에서 6년까지는 해마다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상승하였으나 6년 이상에서는 상승비율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임금 상승액은 근무경력별과 지역별, 업무분야별 지급되는 차이가 있었으며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1회 지급액의 경우 전라도가 연지급액은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직원관리와 교육담당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²⁾(2005년) 자료에 의하면 치과위생사의 월평균 임금은 135만원이고, 상위 25%는 150만원, 하위 25%는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 직종 의료기사인 방사선사(198만원/250만원/150만원), 임상병리사(187만원/250만원/120만원), 물리치료사(142만원/180만원/120만원) 및 그 외 의무기록사(197만원/250만원/133만원), 안경사(150만원/200만원/130만원), 간호사(182만원/217만원

/125만원)와 비교하였을 때 치과위생사의 임금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에 관한 항목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52.13%만이 응답하였고, 지역별로도 응답수가 고르지 않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등¹¹⁾의 연구에서 임금 액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으며, 최¹²⁾, 홍¹³⁾, 신¹⁴⁾의 연구에서도 임금의 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업무 만족도도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임금은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격차, 임금체계, 임금형태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 따라서 의료관련 타 직종과 비교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량과 경력에 대한 현실적인 임금수준의 개선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근무기관별 근무환경에 있어서 연령과 총 근무경력 및 현 근무경력에 있어 보건(지)소와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월등히 높았으며, 정기휴가일도 보건(지)소와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과 치과 병·의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월급여액은 보건(지)소가 가장 높았으며, 정액으로 상승되는 임금상승액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임금상승 총액은 정액과 정률이 병행되어 상승되는 보건(지)소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가는 저출산율에 대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를 3개월로 연장하였으나 조사대상자의 평균 출산휴가일수는 1.60개월로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의 90% 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할 때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에 장애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 및 육아문제는 기혼자가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므로 법정 근무시간이나 출산휴가 등의 규정에 부족한 치과

병·의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여성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 현재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여성인력의 사회활동과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혼여성들의 육아문제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이와 같이 근무기관별 근무시간, 정기휴가일 및 휴가결정권, 연수기회의 자율성, 임금 및 임금상승액 등 근무환경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근무환경의 차이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이후 희망근무지로 퇴직금, 공무원연금, 신분보장 등 평생직장으로서 안정감이 보장된 보건(지)소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⁶⁾된 바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서울, 경기와 같은 특정지역과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와 이직 현상이 나타난다. 일부 치과 의료기관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근무기관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응되는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향상과 근무만족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근무경력별 근무환경에 있어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경력에 10년 이상 그룹에서 평균 7.31년으로 가장 높았고 임금은 근무경력에 증가함에 따라 그룹별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근무일수, 근무시간, 정기휴가일, 월임금액, 포상액수는 근무경력에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임금상승액과 상승률은 4~6년 그룹에서 가장 높고 7~9년 그룹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근무경력에 증가함에 따라 급여와 임금상승률, 상승액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한 실정이며, 근무경력에 대한 급여인상폭이 일부 둔화되어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임금과 비슷한 경우들도 조사되어, 현실에서 임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부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임금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지역별 근무환경에 있어서 임금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평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도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초임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도였으며, 임금상승률과 상승액도 비슷한 결과였다. 그리고 평균 임금액과 초임에서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간의 차이는 약 60여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역별 임금격차와 저임금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어 이직률을 높이고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역간 임금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무환경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는 물론 치과보건의료기관 경영자의 협조와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안정감과 이직률을 낮추고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배출되는 인력의 활용은 물론 기존 치과위생사 유희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구강보건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개선할 때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직률의 감소로 이어져 구강진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효율과 경영부분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치과계 인력문제로 인한 경영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근무환경과 인력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이상의 내용들에 근거하여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금과 복지제도의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평균 근무경력을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치과위생사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직업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연령과 결혼에 따른 제약조건을 줄여야 한다. 또한 경력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직업의 미래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력자들에게 대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성과 숙련도를 강화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며 분야별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셋째, 연수 및 자기개발과 같은 교육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치과위생사들이 직무에 대한 심화,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요구로서, 이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에 따라 처우나 근무환경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적, 분야별 선호도의 편중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제한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공분야와 임상분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 간의 결과가 대조적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내부적인 차등으

로 특정 지역, 특정 분야를 선호한다면 효율적인 구강보건인력 배분 및 구강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편중된 자료가 제시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표본의 선정과정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근거로 조사 분석하였으나, 응답자들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인해 지역과 연령이 고루 분포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임금 등과 같이 응답자가 개방하기를 꺼려하는 일부 항목에서는 응답자수가 다소 적어 자료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켜 사기 진작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을 전국의 각 지역별로 약 20%의 비율로 분류하여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후 치과위생사의 근무기관별, 경력별, 지역별 근무환경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보건분야 근무자가 임상분야 근무자에 비해 연령 및 근무경력이 높고 기혼인 경우가 많으며 고학력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대조를 보였다.
2. 근무기관별 평균 근무일수와 평균 근무시간은 치과의원(5.79일/8.83시간)이나 치과병원(5.67일/9.15시간)이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나 보건(지)소, 기업체 의무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평균 정기휴가일수는 치과병원(6.66일)과 치과의원(6.81일)이 대체로 낮았고, 보건(지)소(19.29일)가 가장 높게 나타나 근무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출산휴가는 평균 1.60개월이었으며 제주, 전라, 충청이 높았고 경상, 광역시, 강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근무기관별 평균 월임금은 보건(지)소 근무자가 가장 높았고, 치과병원 근무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각 근무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근무지역별에 따른 임금 수준은 4년차 근무경력 기준으로 서울이 1,820,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795,800원, 경상도 1,604,200원, 광역시 1,424,800원, 강원도 1,300,000원 전라도 1,016,700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무지역별 초임금은 서울지역이 1,501,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도가 904,000원으로 타 지역보다 낮았다.
5. 근무경력별 임금은 근무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룹별 차이가 있었으며, 상승액과 상승률은 4년 이상 6년 미만이 가장 높았고, 7년 이상 9년 미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근무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와 임금상승률 및 상승액의 증가는 비례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1. 박순주.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careernet.re.kr/career/data/fusion> 2005.
3. 강희정. 대학병원 직원의료기사의 직무환

- 경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 정재연. 치과위생사의 이직 및 직무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월간치과연구 1998; 43(2):49-50.
 5. 권순복. 치과위생사의 근무지별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6. 임해경. 치과위생사의 이직에 관한 연구 -서울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7. 이선미. 치과위생사의 근무지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1998; 16(2):147.
 8. 박정란, 류정숙, 최부근 외 3인. 치과위생사의 업무확장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구보고서. 2004. p18~19.
 9. 근로기준법 제4장 제49조.
 10. 권대철 외 4인. 중소 병·의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방사선기술과학. 2005;28(1):56.
 11. 이현옥, 전주연.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보건대학논문집 1992;15:255-266.
 12. 최은영.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애착에 관한 연구 -서울·경기·인천 지역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3. 홍숙신. 대구광역시 소재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만족도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석사학위논문, 2004.
 14. 신민우.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피로자각증상. 충남대학교 보건·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Abstract

A study on work environments for dental hygienists: - focusing on kind of workplace, career and service area

Jung-Sook Yoo, Young-Nam Kim¹, Gyeong-Soon Han²

Dept. of Dental Hygiene, KeukDong College,

¹Dept. of Dental Hygiene, KyungBok College,

²Dept. of Dental Hygiene, Gachon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work environments of dental hygienists, to find out about what problems there were with their work environments and ultimately to help improve their work environments. It's basically intended to pave the way for furthering the welfare and interests of dental hygienis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dental hygienists who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from among the members of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pproximately 20 percent of the members each were selected from every region across the nation, and their work environments were investigated in consideration of the kind of their workplaces, service area, career and field of duties. As fo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ental hygienists investigate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ose who worked in the field of health care and the clinical workers. More of the former were older and married, and the former was ahead of the latter in career and education as well. Regarding working hours and leave of absence by kind of workplace, the number of regular average holiday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lace of employment. Dental hospitals (6.66 days) and dental clinics(6.81 days) gave their employees less days off on the whole, whereas public dental clinics(19.29 days) granted the dental hygienists the longest leave of absence. Also, there was a broad gap in the number of regular average holidays among different regions in the nation. The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in Gangweon province enjoyed the longest holidays(10.88 days), while those on Jeju Island took the shortest vacation(4.46 days). Concerning monthly mean pay by place of employment, those who worked in public dental clinics were paid the best, and the

dental hospital employees received the smallest pay. Their monthly mean pay significantly varied with the kind of their workplaces. As to connections between service area and pay level in the event of the dental hygienists with a four-year career, those who served in Seoul were paid the best(1,820,800 won), followed by Gyeonggi province (1,795,800 won), Gyeongsang province(1,604,200 won), metropolitan cities (1,424,800), Gangweon province(1,300,000 won) and Jeolla province (1,016,700 won). In regard to the starting pay in the different areas, the starting pay was largest in Seoul(1,501,800 won) and smallest in Jeolla province(904,000 won).

Concerning work environments by place of employment,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dental clinics,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were far older than the others, and the career of the former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the latter. As to the number of regular leave of absence, public dental clinics,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were different from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that regard as well. Concerning monthly pay, public dental clinics paid their employees the best, and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were ahead in terms of pay raise. But the reason seemed that public dental clinics and general hospitals increased the pay of their employees based on a fixed wage system and according to a fixed rate at the same time. As for relations between career and work environments, the pay of the dental hygienists differed with their career. The amount and rate of pay raise were largest for those whose career was between four years and less than six years, and smallest for those whose career was between seven years and less than nine years.

The above-mentioned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in order to give dental hygienists better treatment, pay and welfare benefits should urgently be improved, and that it's required to take actions to boost their job satisfaction.

Besides, they should be given more chances to receive education or to take training courses in pursuit of self-development, and how to narrow gaps in work environments among different regions or fields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